

목포의 모든 관광정보, 스마트폰 하나에

‘스마트 관광 플랫폼’ 업그레이드·AI 서비스 도입

목포시는 4월부터 기존 스마트 관광안내 앱의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스마트 관광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비짓목포’ 앱과 주요 관광지를 다국어(한·영·일·중)로 해설하는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을 지난 2021년 구축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관광정보제공 기능에 국한돼 있고, 콘텐츠가 목포시에 한정돼 있어 서남권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사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기존 앱을 대폭 업그레이드 해 관광객들이 한층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비짓목포(Visit Mokpo)’ 앱은 네이버 플러스,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숙박·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 예약·결제 시스템

을 제공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한층 간편한 방법으로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은 서남권 9개 시·군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서남권 주요 관광지의 해설을 앱 하나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리텔링 형식의 오디오 콘텐츠로 전달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 앱 최초로 도입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목포 관광에 관한 주제에 한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대화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목포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 다. /목포=김근호 기자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완료

4개월여 앞당겨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국비 1475억 투입

레이크 가든 센터·모노레일·전망대 등 차별화된 시설 구축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이 예정보다 4개월여 앞당겨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기본 계획은 사업 추진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 성과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용역 착수 단계부터 세부 사항 등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산림청에 건의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전시온실 투시도.

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 3월 5일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가 개최됐다.

기본 계획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목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 가든 센터’, ‘모노레일’,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트리탑 데크 로드’, ‘전시 온실’ 등을 구축하여 더 수목원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귀향 청년 가구에 새 보금자리 제공

마흔세번째 사랑의 집짓기 입주식 가져



강진군은 최근 마흔세번째 사랑의 집짓기를 완공해 취약계층 청년가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 보금자리 입주식을 지난 1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입주식에는 서순철 강진 부군수, 윤영남 강진군수의원을 비롯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극 사무처장, 강진탐진로타리클럽 정원장 회장 및 회원들,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입주자는 8년 전 귀향해 건축일을 하며 노모와 함께 살 집을 직접 기초 공사를 하던 중 건강을 잃고 노모까지 사망해 희망을 잃고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 매칭그랜트지원사업 및 탐진로타리 후원금 등을 연계해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를 진행했다.

강진군 2000만원, 강진탐진로타리클럽 1000만원, 동광전업 지정기탁금 500만원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500만원을 매칭해 총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에 23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다.

새 보금자리에 입주한 청년가구는 “쾌적하고 아늑한 새 집을 지어 줘 감사하다”며 “냉·난방시설이 없는 컨테이너 생활로 몸도 안 좋았고 화재 위험에 늘 걱정되었는데 이런 걱정이 없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취약계층 보호 적극 노력

진도군이 추운 겨울철 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겨울철 위기가구 우수 지자체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실적과 혜택 지원, 민관 협력도, 복지사각 해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23개의 시군구가 선정됐고 진도군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도군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발굴보고회 주1회 개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체 통한 선제적 발굴·지원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화재를 입은 피해 가구에 민관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키트 30가구, 사랑의 동지팔죽·김장김치 500상자, 어르신 행복도시락 226명, 이불빨래 200가구, 집수리 20가구 등을 전달하고 추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촘촘한 안정망을 구축하고 차별과 소외없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 법인지방소득세

4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무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혼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무안=김상문 기자

해남,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일석삼조’ 효과

해양쓰레기 감소·새활용 제품 생산·처리비용 예산절감

해남군이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새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 예산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페스티로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 원인이자 해안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용해 지금까지 103만개에 이르는 페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했다.

페스티로폼 감용기는 1일 1,000~1,200개의 페스티로폼을 처리해 250kg 압축 성형물로 새활용하게 된다. 압축성형물은 재활용품 1차 공정을 통해 사진액자, 건축자재 등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압축성형물을 판매한 체의수입 3,900만원은 물론 위탁 처리비용 28억 8,5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시간당 폐부표 500개를

처리, 100kg의 압축성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감용기를 신규 구입해 페스티로폼 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규 감용기는 1일 6시간 작업시 3,000여개, 기존 감용기 처리 용량의 2배를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용으로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미세 플라스틱 발생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해남군)에 기부하고
해남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2023. 1. 시행)

쉬운 기부해남군 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1석3조

기대효과

기부자 → 지자체 → 지역생산자

세액공제·담례품 제공 ← 지자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해남에서 준비한 담례품을 드립니다.

기부금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